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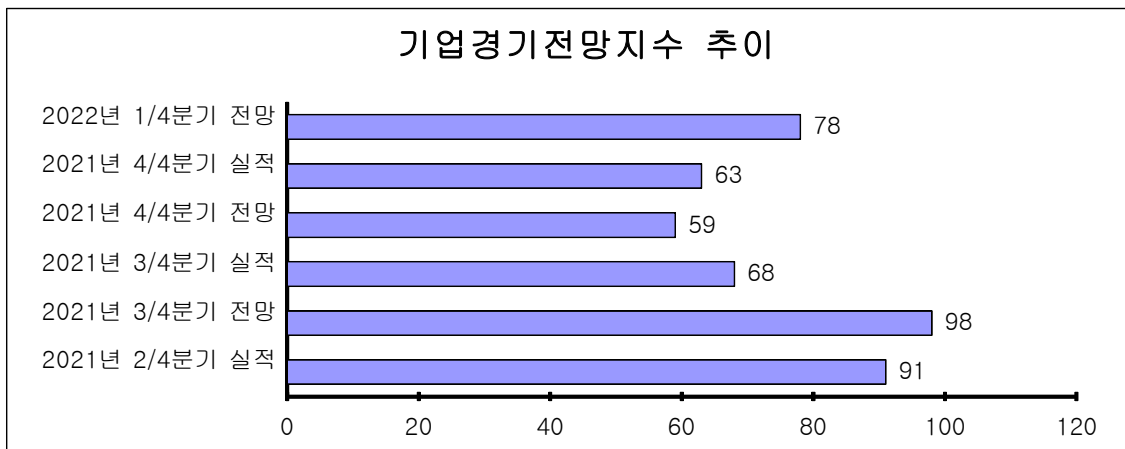
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영주상공회의소 調 査 結 果 | 2022년 1/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|
| 회원조사과 054)632-8830 | 관내 30개 제조업체 조사 결과 |

영주상공회의소(회장 조관섭)는 최근 관내 30여개 제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2022년도 1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 : Business Survey Index)를 조사한 결과, 직전 분기보다 '19' 포인트 상승한 '78' 을 기록했다.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'5'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 ~ 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,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.



부문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

| | 2021년 2/4분기 실적 | 2021년 3/4분기 전망 | 2021년 3/4분기 실적 | 2021년 4/4분기 전망 | 2022년 4/4분기 실적 | 2022년 1/4분기 전망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체감경기 | 83 | 92 | 48 | 57 | 42 | 85 |
| 매출액 | 96 | 100 | 61 | 52 | 58 | 73 |
| 영업이익 | 91 | 87 | 57 | 43 | 54 | 65 |
| 설비투자 | 100 | 100 | 113 | 57 | 88 | 92 |
| 자금조달 여건 | 74 | 87 | 65 | 65 | 73 | 77 |
| 공급망 안정성 | 96 | 109 | 57 | 70 | X | X |
| 사업장 가동 | 100 | 109 | 74 | 70 | X | X |

2022년 1/4분기 기업경기 전망 지수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체감경기 85, 매출액 73, 영업이익 65, 설비투자 92, 자금조달 여건 77으로 대체적으로 2021년 4/4분기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했다.

올해가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 ‘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’를 묻는 질문에 ‘수립했다’라고 응답한 기업은 19.2%에 불과했으며 80.8% 기업은 ‘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’고 답했다.

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는 ‘시장 불확실성이 커 사업목표 정하기 어렵다’는 응답이 71.4%로 가장 많았고, ‘위기대응에 집중하느라 계획수립 지연’ (19.0%), ‘신규사업 추진여부 미정’ (4.8%) 등이 그 뒤를 이었다. <기타 4.8%>

새해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묻는 항목에는 ‘원자재가격 상승’ (41.4%), ‘코로나 여파 지속’ (36.2%), ‘국내, 미국 등 금리인상’ (8.6%), ‘부품조달 등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’ (5.2%), ‘기타’ (5.2%), ‘탄소절감 등 환경이슈 대응부담’ (3.4%) 순으로 나타나 경제 안정화와 방역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정책과 원자재·중간재 등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.

또한,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‘경제 활성화’ (64.7%), ‘부동산 안정’ (17.6%), ‘국제관계 대응’ (8.8%), ‘복지 확충’ (2.9%), ‘환경이슈 대응’ (2.9%), ‘정치 선진화’ (2.9%) 순으로 응답했다.

○조사기간 : 2021. 11. 24 ~ 12. 7 (휴일제외 10일 동안)

○조사대상 :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

○조사방법 : 전화, FAX

○BSI의 기준치는 100.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.
100미만일 때는 반대임

○BSI지수=[(호전예상업체수-악화예상업체수)÷ 전체응답업체수] × 100 + 100

○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